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1/12월호
2015년



한인회소식

Fall Colors near Santa Fe Ski Area

Photo by Kwang Soon Shin

뉴멕시코 한인회소식

지난 두 달 동안에 있었던 한인회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1. 한인회 회장 동정: 10월 3일 개천절(Korean National Foundation day) 행사로 초청받아 LA 총영사님 관저에 다녀왔습니다.



〈2페이지로 계속〉

2015년 11/12월호 내용

- 한인회 소식 | 뉴멕시코 한인회소식 : 1
- 한인회 소식 | 김치축제 : 3
- 한국학교소식 | 봄학기학생모집/교사연수 : 4
- 지역사회 소식 | 평화통일 강연/ 법률세미나 : 5
- 뉴멕시코소식 | 국제 열기구 축제 : 7
- 산타페 인물 | Jun Roh's Speech/ 산타페 인간보물 : 8
- 수필 | 개-인간의 오랜 친구 | 이정길 : 9
- 생활정보 | 행복한 미국생활 (5) : 10
- 칼럼 | 왜 여러종류의 성경책이 있습니까? | 김기천 : 13
- 기도문 | 주일예배기도 | 데이빗라탐 : 14
- 미술시리즈 | 빈센트 반 고흐:비운의 삶|심유진: 15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안내 : 17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업소 안내 : 18

뉴멕시코 한인회 소식 (계속)



2. 김치페스티벌 안전 문제로 10월 22일 한인회관에서 이사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강연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4. 어버이회 피크닉이 10월 28일, 수요일 <Red Canyon Campground> 에서 24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모닥불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있는 Quarai Ruins in Salinas Pueblo Missions National Monument, 인디언 유적지도 돌아 보았습니다.



3. 민주평화통일 오렌지 샌디에고 협회 회장단이 알버커키를 방문하셔서 10월 23일 토요일 저녁 한인회관에서 평화 통일



2015년 김치축제

2015년 김치페스티벌을 11월7일 한인회관에서 성공리에 끝냈습니다. 작년보다 참여도가 더 높을 것을 예상하고 음식 준비를 했으나 300명이 넘게 오시는 바람에 음식이 많이 모자라서 급히 다시 더 만들고 해야 되는 혼선도 있었지만 보람된 김치 축제의 하루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외부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놀라울 정도였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신 모든분들께서 준비했던 공연 및 음식을 즐겼기를 바랍니다. 다음해에도 우리 한국을 알리며 공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한인회는 노력하겠습니다. 김치축제를 위해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과 후원금으로 도와주신 뉴멕시코 한인회 회원 여러분들과 아리조나 한인회 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진설명) 오른쪽부터: 애리조나 한인회 부회장(에미 리), 회장(최완식), 뉴멕시코 한인회 부회장(임낸시), 회장(김영신). 왼쪽부터: 뉴멕시코한인회 부이사장(민명희), 애번 빈하월, 이사장(소피 아빈하월), 애리조나 코리아 타임즈 사장 (장재원) 내외분과 손님.



뉴멕시코 한국학교 2016 년도 봄 학기 학생모집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높은 자질과 소명
 감을 고루갖춘 교사진들을 모시고
 2016 년도 봄 학기 학생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개강날짜: 2016년 1월 28일(목) 오후 5- 7
 2016 년 1월 30일 (토) 오전 9:15- 오후
 12:05

대상: 유치원 - 12학년, 성인반

과목: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특별활동 (한국 문화/역사, 미술, 동요, 고전, 태
 권도)

등록처 : 한국학교 사무실

문의: 김레베카 교장 (505) 331- 9660, NMKorean-
 language@gmail.com

수업료: 학기 150불(목요일 또는 토요일 수업을
 선택할수 있음)

2016 Spring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The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invites
 you to the 2016 Spring school year with highly
 motivated and qualified teachers.

First Day: Jan. 28 (Thurs) 2016, at 5:00pm
 thru 7:00pm

Jan. 30 (Sat.) 2016, at 9:15am thru
 12:05pm

Enrolling: K - 12th grade, Adults

Subjects: Korean-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cial courses- Korean History & Cul-
 ture, Art, Music, TaeKwonDo

Register: NM Korean Language School

Contact: Rebecca Kim, Principal of the Korean Lan-
 guage School

(505) 331- 9660, NMKoreanlanguage@
 gmail.com

Tuition: \$150 (You choose once a week
 either on Thursdays or Saturdays - Please indicate
 preference during registration)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BQ, NM 87112

www.kaanm.com

한국 학교 교사 연수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 미주 한국연합회 - 협회장
 신영숙님 과 두분의 교사님을 모시고 교사의 자질과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교사연수가 다음과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학교에 관심있으신분
 환영합니다.

날짜: 11월 14일 (토) 2015

시간: 오후 12.30 - 4.00

장소: 뉴멕시코 한국학교

문의: 김레베카 교장, 505 331-9660

nmkoreanlanguage@gmail.com



10월 30일 할로윈날의 수업



평화 통일 강연 및 워크숍

10월 23일(금요일) 오후 5시 한인회관에서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이하 평통) 권석대 회장단이 방문해 통일 강연 및 워크숍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뉴멕시코 평통 자문위원들과 동포사회 지도자인 전임 한인회장단과 목회자 부부가 초청됐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권석대 회장, 정성남 수석 부회장, 최정택 운영부회장, 송동진 홍보대변인, 주수경 재무간사, 김영옥 행정실장, 잔 노 총무간사 모두 7명이 참석했다. 정풍자 자문위원의 개회 선언으로 강연회가 시작되었다. 이어 17기 뉴멕시코 조규자 분회장의 환영사를 통해 내빈소개가 있었다. 정성남 수석 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권석대 회장의 감사장 수여가 있었다. 김두남 고문, 조규자 분회장, 이경화전회장, 임낸시부회장이 표창을 받았다. 이어 권 회장의 통일 강연 및 워크숍이 슬라이드를 통해 소개됐다. 강연을 마친 후 교민 박에스터 선교사의 통일 시 낭송이 있었다. 끝으로 참석한 전원이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 (글 : 아리조나 타임즈에서 요약 전재)

- 네바다 주(라스베가스, 리노)
- 아리조나(피닉스)
- 뉴멕시코 주를 포함하고 있는데
- 지역적으로 볼때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는 대한민국 남한의 10배가 넘는 관할지역이 됩니다.



통일준비를 위한 종합적 국가전략으로

-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1. “남북간 신뢰프로세스”
 2. “드레스덴 선언”
 3. “통일 대박론”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추구하는 등 통일준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 그동안 남북 관계는 정권 대 정권의 차원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등 한반도 통일을 위한 원칙과 방법과 교류방안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합의를 여러차례 이뤄냈습니다.
- 특히 1989년 남북 경협이 재개된 이래 우리 정부는 “햇볕정책”, “비핵개방 3000”등의 대북정책에 다양한 남북경제 협력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합의된 사항은 단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고 무시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 오히려 북한 정권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연평도 포격 같은 반응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안한 신뢰프로세스는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입니다.
- 이는 남북간에 높은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형성을

<6 페이지로 계속>

아래의 글은 권석대 회장이 뉴멕시코 한인회관에서 10월23일에 가진 평통 워크숍에서 발표한 강연 내용의 요약문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는

- 대통령 직속 헌법 기관으로서
-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장관급 수석부의장과 차관급 사무처장을 두며 국내 229개, 국외 43개 도합 272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 제 17기 자문위원 전체 수는 19,947명인데
 1. 국내 직능대표 13,512명, 지역대표 3,157명
 2. 그리고 해외 117개국에 있는 3,27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3. 전세계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조직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렌지샌디에고 협의회는

- 오렌지 카운티, 산디에고, 리버사이드, 임페리얼 카운티

한인을 위한 법률 세미나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법률 세미나가 10월 11일 (일) 오후 1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김기천 목사의 감사 소개와 기도에 이어 강의가 시작 되었다. 강사는 Cuddy & McCarthy, LLP 의 노영준 변호사였다. 세미나의 주제는 중소 규모 사업체 시작과 운영 및 이에 관련된 법률문제 (창업, 노사문제, 세금 및 관련 법률 교육)를 다루었다. 또한, Estate planning에 관련한 법률로 유언, 유서, Living Trust 및 유언장에 대한 공증 외에도 사업 관련 준비서류 및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세미나는 한국어로 이루어졌고 영문자료는 별도로 배포되었다. 강의를 맡은 노 변호사는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세미나 후 질의응답을 통해 한인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질문을 받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시간도 가졌다.

노 변호사는 2015년 미국 법률협회 (American Inns of Court) 가 선정한 산드라 데이 오커너 상 (Sandra Day O'Connor: 전



미국 연방 대법원장)을 10월24일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에서 받았다. (관련기사 8페이지)

평화 통일 강연 및 워크숍 < 5 페이지에서 계속 >

-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 아울러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가 발전되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 시대를 열기위한 우선적 과제의 하나로 제안된 것입니다.

드레스덴 선언

- 박근혜 대통령은 2014.3.28 옛 동독지역의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 5대 명문 공대의 하나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기조연설에서 세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 1. 첫째는 인도적 문제로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함께 북한 산모와 유아 지원사업을 제안하셨고
- 2. 둘째는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북한 지역에 남북 복합 농촌단지를 조성하고 큰 규모의 경제협력 차원으로 교통과 통신등의 인프라 투자와 지하자원 개발을 제안하셨고
- 3. 셋째는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수 있도록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등을 제안하셨습니다.

통일 대박론

- 박 대통령은 2014 년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을 언급했습니다
- 무엇이 대박인가?
- 얼마나 대박인가?

남북한의 경제력의 차이

- 우리 나라와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모든 분야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 먼저 2013년 북한 주민 한명이 벌어들인 연소득은 138만원으로 남한 2천870만원의 21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 2012년의 남북간 격차 18.7배 였는데 1년 사이에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33조8천440억원으로 남한의 42분의 1에 불과합니다.
- 북한 인구는 2천454만 5천명으로 남한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고 있으며
- 남북한을 합한 총인구는 7천476만 5천명이 됩니다.
- 수출과 수입액을 합한 무역총액의 격차는 더욱 커서 우리가 북한의 14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 1 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 --

- 김병연교수는 “통일편의 극대화를 위한 통일방식과 전략”이라는 발표문에서 2014년에 점진적 통일을 시작할 경우 경제적 부담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2035년에 정치적 통일을 이룰수 있다고 보았고
- 그는 점진적 통일과정을 거칠 경우 2036년에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61,000달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000달러가 되어 남북의 1인당 국민소득차는 5:1 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 이러한 소득격차는 현재 한국의 1인당 지역총생산의 최대 격차와 유사하기에 2035년에는 경제적 부담없이 정치적 통일을 이룰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한편 홍순직 연구위원은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뒤, 통일편익을 중심으로 2050년 통일코리아의 미래상을 제시했는데, 우선 인구는 7,350만명으로 세계 26위, GDP는 6조560억 달러로 세계 8 위, 1인당 GDP는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높은 8만6000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연간 153.9억 달러의 수입대체효과가 있고, 국방비는

2050년까지 누적해서 1조 8862억 달러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종합국력지수가 세계 10위내에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5년 정책건의

- 민주평통에서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2015년 1차 정책건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통일부는 통일의 비전과 원칙 미래상이 담긴 “통일헌장”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하면서 “대동강의 기적”을 통일헌장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2. “대동강의 기적”은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동반자로서 과거 “한강의 기적”과 같은 북한의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 3. “대동강의 기적”은 북한 기업(경제)의 성장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 4. 우리기업은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풍부한 성장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5. 북한판 KSP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자는 제안입니다.
- 6. KSP는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 발전 공유사업)으로써 한국 정부에서 2004년 최초 실시된 이래 그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 협력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일대박

- 분단비용의 소멸
- 1.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2014년을 기준으로 35조7056억원으로 세계 11위 규모입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3.5%가량 오른 수치로써 국내 총생산(GDP)의 2.52%이며 전체 국가예산의 14.4%를 차지합니다. GDP의 2.52%를 넘는 국가는 이스라엘(7.85%), 미국(4.12%), 러시아(3.06%)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북한지역에 있는 막대한 지하자원, 천연자원, 대륙을 관통하는 통로로 부터 얻는 큰 이익
- 투자대상국의 제 1위 (골드만삭스)/Korea

한미동맹

- 박근혜 대통령의 18일 3박 4일간의 미국방문은
- 1. 박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 확인하면서 통일 외교의 속도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2. 15일 오전 미국 국방부 (펜타곤)를 방문하여 한미 장병들에게 “여러분이 한미동맹의 심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3.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한미 양국 기업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점 등도 강조했습니다.

독일통일이 주는 교훈

- 독일은 통일 이후 수십년 동안 일관된 정책과 과도기적인 노력을 거쳐 오늘의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지 로또에 당첨되듯이 단번에 대박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750만 해외동포, 250만 미주 한인 동포들은 통일 에너지를 결집하고 민간의교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뉴멕시코 소식

국제 열기구 축제 성황리에 마침

지난 10월3일 부터 개막되어 11일에 막을 내린 알버커키 인터내셔널 발룬 피에스타(국제 열기구 축제:Albuquerque International Balloon Fiesta)는 예년에 비해서 더 좋았던 날씨의 덕분으로 성대하게 잘 치루어 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열기구는 560개에 달하며 그중 106개의 열기구는 특수모양의 Special Balloon이었다.

이른 아침 행사에 수만명에 달하는 관객이 발룬파크로 집결되는 것은 극심한 교통 혼잡을 의미하게 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주최 측에서는 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다섯개 지역과 발룬파크 사이에 임시 버스 운행을 제공했다. 알버커키 지역에서 운행되는 학교 버스 약 200대가 총 동원되어 호프만타운 교회, 코로나도 몰, 커튼우드몰 등 다섯개 지역 주차장에서 새벽 4시 30분 부터 연속으로 관객을 실어 날르곤 했다.

이번 행사에 등록한 열기구 파일럿(조종사)는 547명이었다. 전체 파일럿 중에서 61명은 여성 파일럿로서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에서 온 발루니스트 파일럿도 약 78명으로 17개국에서 참여했다. 타이랜드는 금년 처음으로 참가한 나라이면서 가장 먼곳에서 온 나라중 하나로 주목 받았다.

9일간에 걸친 44차 국제 발룬 피에스타 행사를 도운 자원 봉사자 약 1000명, 열기구가 내리는 지점을 쫓아가서 착륙하는 일을 돕는 체이스크루(Chase Crew) 봉사자 2000명이 수고했다. 행사를 위해 재정적 후원을 한 알버커키 지역 업체는 약 130업체이며 케논(Canon) 카메라 회사가 후원 대표로 지정되어 있다.

열기구가 이륙하는 라운치사이트 는 208개이며 잔디밭으로 된 파크의 전체 면적은 풋볼 경기장 56개에 해당되는 넓은 면적이 된다. 이른 아침 관객의 허기를 매꿀수 있도록 Breakfast Burrito 나 햄버그등 음식을 판매하는 45개의 부스가 설치되었었다. 작년 알버커키 열기구 축제에 모여든 관광객 숫자는 75만 명 이었는데 금년도 공식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작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과 글: 편집부)



산타페 인물

Sandra Day O'Connor Award
Jun Roh's Speech

아래의 글은 지난 10월24일 미 대법원에서 산드라데이 오코너 상을 수상한 노영준 변호사의 수상 담례문이다. 노 변호사는 산타페에 있는 커디 & 맥카디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변호사이다.

Young-Jun Roh, Esq. has received the prestigious Sandra Day O'Connor Award for professional Service by the American Inns of Court. The Award was presented at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October 24. Roh is an associate with the law firm of Cuddy & McCarthy in Santa Fe, NM. This is outline of his acceptance speech.

Thank you, Lisa, for your wonderful introduction about me, and I really appreciate it.

Justice Ginsburg, Chief Judge Stewart, distinguished guests from of United Kingdom, and distinguished guests in attendance at this event.

I am truly honored to accept this prestigious award, and extend my sincere thanks to the American Inns of Court and to all who have made this day possible. This is something I certainly will treasure forever.

I am also thankful for my firm, Cuddy & McCarthy, because it has allowed and encouraged me to help those who are unable to afford the services of lawyers. Many senior partners and colleagues at the firm flew all the way from New Mexico to support my honor today; this shows their desire to support pro bono and public works in our profession. This achievement cannot be possible without your support and help. I am fortunate to have met many professional and ethical judges and lawyers over the past years since I began practicing law and joined inn of court; most of them did not mind donating their time to me whenever I had legal or personal questions. Later, these positive experiences inspired me to think that since I had benefited from my mentors and colleagues that I needed to give back to people who need my assistance. I learned and believed that is exactly what a lawyer should be and I wanted to become that lawyer.

As Justice O'Connor stated that while a business can afford to focus solely on profits, a profession cannot – it must devote itself first to the community it is responsible to serve.

I learned from everyone that I have interacted with in this profession that the public relies on our judicial system and the public has confidence in lawyers supporting the rule of law. They expect lawyers to do whatever they can ensure the public's fair access to our court system. This concept of equal justice is fundamental to our entire legal system. The fact that lawyers are striving to achieve this equal justice and fairness in our legal system makes the American legal system the most fair and just one in this world. I am honored to be part of this tradition and to participate in being one of American inn of court's lawyers - they respond to this noble calling to serve the underrepresented in our society and to make sure that justice exists for all.

Additionally, I want to thank a very wise lady who inspired me every single day to be who I want to be, who I should be, and gave me the courage to dream to make it happen and possible for me. She is my late mother; she's given me the strength and courage to help people in need and to make myself who I should be. I believe she is smiling in the above that her son made it, as a small step, toward being who I should be. Without her mentoring, guidance and wisdom, I would not be here today before you. She should receive a full credit for what I achieved today. Further, I like to thank everyone at the firm and the American Inns of Court, and you all are my teachers, mentors, friends and family. A Korean guy attended a school in Wyoming and you let me appeared before the court, important presentations and put me in the lawyers' world – this is why the American legal systems works and should be the best system existing in this world.

Finally, I would like thank Americans Inns of Court for this award, and I know this award means that I must continue to strive to give back to the public what it has given to me so that I will be worthy of this prestigious honor. Thank you very much.

산타페 인간 보물 지정에
허브 빈하월씨로 선정

산타페 지역에 사는 시민으로 년세가 드신 분 중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했고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 세 사람을 매년 선정해서 리빙트레저어로 지정해주는 501(c)(3) 비영리 자선단체가 있다. 이 단체의 이름이 “산타페 리빙 트레저어(Santa Fe Living Treasure)”, 직역한다면, “산타페에 살아있는 보물” 의역을 한다면 “산타페 인간 보물” 이라 할 수 있겠다. 2015년에도 세분이 리빙 트레저어로 선정되었는데 그중 한분이 허브 빈하월(Herb Beenhauwer)씨이다. 이분은 뉴멕시코 한인회 이사장이신 소피아 빈하월씨의 시아버지가 되신다. 첼로 연주자로도 잘 알려진 소피아 이사장의 남편 애브 빈하월(Evan Beenhauwer) 씨의 부친이시다. 소피아 이사장과 애브 빈하월 내외는 부부 목사로서 뉴멕시코 지역의 기도운동 사역 목사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 10월 12일자 Santa Fe New Mexican신문에 금년도 산타페 리빙 트레저어로 선정된 허브 빈하월씨에 대한 소개 기사를 내놓았다. 그가 11살때 그의 부친이 네델랜드 암스텔담에서 나치에 대항하여 활동하다가 UN의 여권을 얻어 미국으로 오게된 그 때 당시 얘기로 부터 시작해서 1972년 산타페로 이주해 오기까지 그의 일생을 소개했다. 그가 산타페에 사는 동안 86세에

이르기까지 인디언 미술품 1000여점을 수집했고 이를 전시할수 있는 호피 인디언 부족의 박물관 건립을 위해 노력해온 사실과 나바호 인디언 대학을 위한 자원 봉사, 산타페 고등학교에서 철학선생으로, 미국으로 이민온 성인들을 위한 영어강의 자원교사로의 봉사활동을 위시해서 수많은 타에 본이 되는 그의 삶을 소개하였다. 지금도 피아노와 첼로를 즐겨 연주하시며 그림 그리는 취미도 즐기신다고 소개했다.



개 - 인간의 오랜 친구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약 만 년 전, 가장 먼저 가축이 된 동물이 개다. 늑대에서 유전된 복합형 행동 때문에 훈련이 가능하고, 장난을 좋아하며, 가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잘 적응한다. 사람을 잘 따르고 영리해서 원시인들과 어울려 살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잘 발달된 청각으로 맹수나 낯선 사람의 접근을 경고해주고, 후각으로는 사냥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때지어 사냥감을 쫓는 개의 행동은 수렵생활을 하던 원시인들의 생존에 크게 기여했다. 개의 가축화는 인간의 성공적인 생존을 유도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밖에도 쓰임새가 많아 개를 이용하는 생활방식은 지구 각처로 신속하게 퍼져 나갔다.

양물이나 소몰이, 썰매끌기, 군견이나 경찰견, 사람의 보호자나 반려자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식육생산용으로 사육되기도 했다. 반세기 전부터는 구미에서 시각장애인의 살아있는 지팡이 노릇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애완동물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몇몇 종으로는 경주대회를 열기도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동물이면서,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인 것이다. 품종만 해도 200가지가 넘는다.

주인에게 충성스러워 충견이라고 불리기도 하다가, 그 단계를 넘어 요즘에는 애견이라 불린다. 자고로 고양이는 장소에, 개는 사람에 집착한다고 알려져 있다. 아무 것도 못보게 자루에 넣어 이삿짐과 함께 가지고 간 고양이는 전에 살던 집을 찾아가 버리지만, 이삿짐 뒤를 사람과 함께 간 개는 새 집을 떠나지 않는다. 1994년에는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려갔던 개가 그 먼길을 걸어 7개월 뒤에 다시 진도의 주인을 찾아간 일도 있었다.



진돗개

우리의 설화에서 개는 사람에게 충실하고 의리를 지키며 은혜를 갚는 존재로 나타나, ‘의견설화’로 따로 구별해야 할 정도로 독특한 설화문화를 구성한다. 들불을 꺼서 아니면 호랑이를 물리쳐 주인을 구하거나,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발명해준다. 전라북도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에는 의견비가 세워져있고, 경상북도 선산군 해평면 낙산리 칠창마을에는 의구총이 잘 가꾸어져 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지방은 우리 나라에 모두 25곳이 넘는다.

대조적으로 속담이나 민요 그리고 일상의 말 속에서는 천덕꾸러기나 미운 존재로 표현된다. 성질이 고약하고 막된 사람은 개고기이고, 체면이 아주 엉망이 된 꼬락서니는 개꼴이다. 값어치 없는 죽음은 개죽음이고, 대중없이 어수선한 꿈은 개꿈이다. 사리에 맞지 않는 허튼 소리를 하면 개나발 분다거나 개소리 한다고 한다. 있으나 마나 한 것은 개뽕이고, 사리에 어긋나거나 온당치 못하게 되어가는 판은 개판이다. 그밖에도 개수작, 개똥상늬, 개똥참외, 개차반처럼 ‘개’ 자만 갖다붙이면 비하하는 말이나 욕이 된다. 영어권에서도 개자식이라는 욕을 비롯하여 개를 비하하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만약 개들이 이걸

알면, 무슨 이런 지랄 같은 경우가 다 있느냐고 틀림없이 따지고 들 것이다.

원개는 병이나 잡귀를 물리치고,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게 하며, 미래의 재난을 예고해준다고 믿었다. 저승설화나 무속신화에 나타나는, 하얀 강아지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는 믿음은 개 모양의 흙인형을 만들어 합장하는 풍속을 낳았다. 조선시대 이전의 개의 모습은 고분벽화 × 고분출토품 × 흙인형 × 십이지신상 등에 나타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여러 화원들의 그림이나 민화에서 순박하고 정다운 모습으로 묘사된다. 화조구자도 花鳥狗子圖나 흑구도 등은 나무 아래에 개를 그린 그림들로 도둑을 막아주는 상징이었다.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 토종개가 있다. 용맹하고 뛰어난 사냥감각을 갖춘 대표적인 진돗개는 석기시대 사람들이 기르던 개가 진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혈통과 야성을 비교적 순수하게 유지하면서 토착화한 우리 고유견이다. 그 개가 삼국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일본에는 지금도 진돗개의 후손들이 진돗개와 구별할 수 없는 모습의 명견이 되어 사랑받고 있다. 풍산개는 백두산 고원지대에서 사냥꾼이나 화전민들에 의해 길들여져 모습이나 용맹성이 진돗개와 비슷하다. 삼살개 있는 곳에는 귀신도 얼씬 못한다고 알려진 삼살개는 온몸이 긴 털로 덮여 있으며, 민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개끼의 사람은 영특한 두뇌의 소유자로, 흔히 종교나 철학 그리고 문학과 인연을 맺는다. 스승을 따르고 친구에게도 변치 않는 우정을 품으며,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봉사한다. 헌신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이 강하며 열정적으로 일한다. 너그러워 남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언행이 바르고 솔직하며, 주의 깊고 겸손하다. 반사회적이고 냉소적인 면도 있다. 참음성이 부족하여 곧잘 싸운다. 경계심이 강해서 방어적이며, 고집이 세고 심술 굵다. 스스로를 잘 괴롭히며 남을 부담스럽게 한다.

어린 아이는 어미가 못생겼다고 싫어하지 않고, 개는 주인이 가난하다고 떠나지 않는다. 고려의 명문장가 이규보는 그의 수필 ‘명반오문’ 命班獒文에서 개에게, 밤중에 찾아오더라도 쫓지 말아야 할 사람과 쫓고 물어도 좋을 사람에 대하여 일러준다. 말린 고기, 절인 생선, 좋은 술을 가지고 스승을 찾아온 사람이 있거든 쫓지 말라고 했다. 겉은 부드러운나 속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남의 약점이나 염탐하면서 악랄함을 숨기고 있는 자가 웃음을 띠고 오거든 쫓아야 한다고 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는 속담은 귀천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 벌어서 주위사람도 돌봐주며 산다는 말이다. 임금이나 나라에 정성껏 충성을 다하는 것을 견마지로 犬馬之勞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자기 일에는 소홀하면서, 상관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나서서 잘난 체 떠드는 행동을 일러 ‘못된 개 들에 가 쫓는다.’고 한다. 사람은 모름지기 인간의 본성 대로 자기 일에 열중하는 것이 좋다.



#5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편집부)

1-11 기다림 (영주권 문호)



“최근에는 영주권문호가 많이 당겨졌다고 하더라. 취업이민 3순 위도 3년안쪽에 받는다고 하더라구.” 견우가 말한다. “예전에 나는 영주권받으려고 6년은 기다린 것 같아. 그기간동안 E-2비자 2년마다 연장하느라 정말 힘들었지.”

이민 절차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와 달리 한국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는 매달 Visa Bulletin 이라는 서류를 발표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기기간을 결정해서 고지하는 서류이다. 이민국과 국무부는 해외공관들과 현재 영주권 처리 상황등을 고려하여 매달 그 대기기간을 당기거나 뒤로 후퇴시키면서 전체적인 이민자 숫자를 통제하는 셈이다. 특히 일반적인 취업이민 3순위는 신청자가 많아 수년씩 기다리는게 보통이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민개혁은 공화당 정권이던 부시 행정부시절에도 진행되다가 주저앉은적이 있다. 많은 분들이 역사적으로 10년여를 주기로 미국이 대서면을 해온 점을 기대어 결국은 이민개혁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이민과 비자절차는 늘 기다림의 연속이다.

전문가의 한마디

이민국의 소속

이민절차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부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소속부처에 대한 관심은 공무원이나 또는 시험준비하는 고시생들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가끔은 나무만 보기보다 높은곳에서 숲을 한번 보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민자로서 미국의 행정조직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으므로 조금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관리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48년 정부수립당시에는 외무부 의전

과에서 관장하다가, 1961년 5. 16혁명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행정기구지침에 따라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미국도 외국인의 이민업무는 그동안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소속이었습니다. 즉 현재 우리가 국세청 IRS 와 함께 자주 쓰는 약자인 이민국 INS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이민귀화국) 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법무부 산하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11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미국 정부는 테러사건 이후 행정부 내의 각 부처에 분산된 대 테러기능을 통합하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신설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창설된 조직의 이름이 바로 국토안보부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입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1947년 전쟁부와 해군부를 통합해 국방부를 창설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22개 정부 조직에서 17만명을 흡수하였다고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경비, 재난대비, 화생방 공격대비, 정보분석 등의 업무를 관할하며, 세관, 이민귀화국(INS), 국경순찰대, 비밀경찰국, 연방비상계획처등 기존의 조직을 흡수하고 창설된 기관도 포함시켜 미국 행정부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큼니다. 다만 기존의 연방수사국 (FBI)과 중앙정보국(CIA) 은 통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의 예방과 국민보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된 이민국의 기능 역시 이전보다는 미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자국민을 우선하는 미국민의 최근정서에 영향을 더 받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이민국은 없어지고 그 기능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새로운 세 기관에 이관되었습니다. 가장 흔히 이민자가 만나는 부서가 바로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 입니다. 귀화이민국, 이민국 또는 CIS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을 받는 때까지 비자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위해 서류를 신청하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부서가 바로 이곳입니다. CIS 산하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및 버몬트 네 주에 종합서비스센터가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분류에 따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가족이민을 통괄하는 국립이민센터 (NBC) 가 있고 주요도시에는 인터뷰 등을 수행하는 지역이민국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주 대하지 않은 나머지 두 부서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단속과 국경관리를 맡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CIS와 같은 대민 서비스부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중 첫째는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업무를 맡고 있는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또는 ICE 라고 부릅니다. 한인 신문에 보도되는 뉴스 중에 대형업체를 급습하여 불체자단속을 했다고 하면 바로 이

부서에서 진행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 들어오는 공항, 항만 및 육로국경에서 입국에 따르는 모든 국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입니다. 세관국경수비국, 국경수비대 또는 CBP 라고 부릅니다. 오해여 공항이나 나이에가라 폭포로 입국후 처음으로 마주치는 미국 공무원이 바로 이 CBP 소속 officer 들 입니다. 미국입국을 위해 우리가 입국심사를 받는 장소를 Port of Entry 라고 하는데 이곳에서의 심사를 통해 외국인인 미국에서의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이 결정됩니다.

1-12 이견우의 음주운전과 결핵주사 (영주권 거절 사유)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신청서를 온가쪽이 내는데 두가지 문제가 걸렸었지, 연말 분위기에 그만 음주운전을 했고 그게 경찰에 걸렸지 뭐니.”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차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서 한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실제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는 미국경찰도 점점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이다. 음주운전에 걸리면 초범의 경우에는 대체로 법원에서 Supervision 이라 하여 집행유예와 같이 약식으로 판결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견우 음주운전이 인사사고 등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영주권을 받는 데에는 대체로 지장이 없다. 이민국에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담긴 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제출하면 된다.

“건강검진결과를 마지막에 내잖아. 난 그것도 귀찮게 되었었지. 결핵이 문제였어.” 연우도 생각이 났다. “아 그 불주사맞아서 없었던 것 말이지. 마흔살 정도 이상의 한국 사람들의 팔 윗부분에는 곰보자국처럼 약간 튀어나온 흉터가 있잖아. 땀씨 좋게 어깨를 드러낸 여자 연예인의 팔에도 흉터자국이 남아있는 걸 여러 번 본 것 같네.

그런데 대개 초등학교때 한두번 맞았던 이 불주사에 내가 몰랐던 사연이 있었더구만,” 한국에서 6-70년대에는 결핵예방을 위해 이 불주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BCG 예방접종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차는, 커다란 유리주사에 주사약을 가득 넣고 한 아이에게 주사를 찔러 적당량을 주사한 다음, 그 바늘을 알코올램프에 약간 그을려 “소독”을 한 다음 다시 다음 아이에게 주사약을 찔러 넣는 식이었다. “나는 불주사라는게, 맞으면 불에 데인 것처럼 아파서 이름이 그렇던가, 아니면 뜨겁게 주사바늘을 달궈야만 약효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했었거든, 그런데 진짜 이유를 들어보니 다름아니라 가난 때문이었더라구. 주사바늘 같은 의료장비가 넉넉치 않아서 여러 번 쓰려고 불로 소독을 했던거지.

한국이 어느정도 발전한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 같은 방식의 불주사가 더 이상 실행되지 않았고, 실제로 결핵자체도 거의 차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불주사를 맞기 전에는 먼저 팔에 튜베르클린피부검사 또는 TB test 라고 하는 결핵반응검사를 한다.

이를 통해 몸안에 결핵균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인데 나중에 부풀어 오르는 반응이 몇 mm 가 넘으면 양성으로 판독되고 그러면 흉부촬영을 해서 진짜 감염이 되었는지 검사를 하게 된다. 반대로 부풀어 오르는 반응이 크지 않으면 몸안에 결핵균이 없으므로 몸안에 항체를 만들기 위해 항원을 일부러 넣었고 바로 그게 불주사였던 것이다. 미국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단계에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결핵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한국의 성인은 거의 모든 사람이 불 주사를 맞은지라 몸안에 결핵항체가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TB test 결과 한국사람의 상당수는 팔에 표시되는 반응결과가 양성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밀 검사를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야 했지. 그비용을 추가부담하는 수밖에 없었구. 게다가 그거 알아? 나는 정밀검사 결과, 간에 일정 이상의 흔적이 나와서 수개월치의 약을 조제받아 매일 먹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Indian School Rd

Americas Pkwy

Marriott Dr

Americas Pkwy

I-40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www.japanesekitchen.com

Phone: (505)884-8937, (505)872-1166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ushi & Japanese Cuisine

651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72.1166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어야 했더니깐. 난 아마 그 약때문에 간을 더 버리게 되었을 걸.'
견우가 쓴 웃음을 짓는다. 사실 결핵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는 거의 사라진 질병미므로, 후진국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
들에게 전염성이 있는 결핵균 보유를 확인하고자 하는 정책의 취
지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미국정부가 자국의 보건정책상 이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을
사실 외국인이 뭐라고 나무랄 것이 아닐 터이다. 아무래도 이방
인으로 성인이 되어 미국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
와 배경때문에 불편함과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그나마 값싼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감수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결국 이견우와 김지녀는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손에 쥐게 되
었다.

전문가의 한마디

음주운전과 영주권

사실 미국에서는 일괄적으로 길을 막고 모든 운전자를 검사하
는 DUI 단속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량을 과신하고 아무
일 없을 거라 믿고 음주후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교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DUI기록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
지는 못하는 건지 또는 심지어 추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정
확한 정보가 없이 막연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거나 장기체류를 허용하기 전에
그의 품성을 따지고 싶은 것은 모든 국가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품성이라는 것이 실제 평가하기 곤란하고 자의적이
기 때문에 국가들은 나름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전과 기
록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이민법 212조(a)항에서는 미국입국이나 영주권취득을 거
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 (Inadmissibility)를 규정하고 있습니
다. 예컨대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미국정부의
손해를 끼칠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기록
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즉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
ter) 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범죄, 예를
들어 살인, 강간, 강도 같은 대인범죄, 절도, 사기, 횡령, 공갈같
은 재산범죄, 문서위조와 위증, 뇌물, 세금포탈 등의 전력이 없
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비도덕성이 핵심인만큼 이민자들이 많이들 걱정하는 스피딩

티켓이나 행정기관으로 부터 받은 벌금이나 위반기록은 비
록 수차례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역시나 걱정
거리는 DUI 입니다. 범죄와 관련없이 사는 평범한 성인 에게
가장 흔한 문젯거리가 바로 음주운전적발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해 DUI 그 자체는 비도덕적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 한번의 적발에 벌금과 집행유예 (supervision) 결정
을 받았다면 당시의 법원결정문 (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제출하면서 현재 그러한 습관이 없음을 설명하여 거의 대
부분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기록은 어떤 경우일까요. 첫
째, 과거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제한 또는 취소된 상
태에서 재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입니다. 둘째, 음주운
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는 violent crime으
로 분류되어 큰 문제가 됩니다. 셋째, 음주운전의 결과로 중
범죄(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경우, 지난 2
년동안 2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
기록이 3번이 넘는데 그중 한번이 지난 2년안에 발생한 경우
등에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
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종종 음주운전기록은 그 자체보
다 이를 숨겼다는 점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변호사를 써서 공소를 기각(dismiss) 시킨 경우라던
지 법원에 기록말소 (expunge)를 신청한 경우에, 기록이 아예
안 남는다고 생각해서 관련 이민서류에 경찰에 체포되거나 법
원절차에 연루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오히
려 미국이민국을 속이려 (misrepresentation)한 것으로 평가
되어 영주권이나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
라서 DUI 가 한번에 그쳤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차를 두고 두
번정도 간단히 끝난 경우라면 이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오히
려 나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한 마디 지난호 기사보기

지난호 기사는 웹사이트 voiceofnm.kumcabq.com 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 3/4월호: 이민 오딧세이, 무 비자시대와 이민 트렌드,
비자와 신분
- 5/6월호: 이민자를 위한 알파벳 스프, 비자의 종류, 조기유학과
학생비자, 학생비자와 OPT
- 7/8월호: E-2비자와 투자금, E-2 투자자의 직원비자
- 9/10월호: 순서 매기기 메카니즘, 취업 이민 스폰서의 자격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Lunch
11:30-2:30 Mon-Sat

Dinner
4:30-9:30 Mon-Thur
11:30-10:00 Fri, Sat
4:00-9:00 Sun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왜 여러 종류의 성경책이 있습니까?

김기천 목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오늘날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합친 한 권의 성경을 갖고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면 이상하게 성경책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글 만해도 개역성경, 개역개정성경, 새번역성경, 공동번역성경 등이 있다. 영어 번역본도 50종류가 넘는 많은 성경들이 있다. King James Version, New King James Version,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American Standard Bible, Living Bible, Good News Translation, English Standard Version, World English Bible 등.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성경번역들이 생겨날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던 본문 즉 원본이 없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일이 손으로 써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손(manu)으로 쓴(scriptum) 글을 “메뉴스크립트(manuscript)”라고 한다. 현존하는 신약의 메뉴스크립트는 모두 원본을 보고 베껴 썼기 때문에 “사본(codex)”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신약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시 문서를 기록할 때 사용했던 종이도 양피지나 “파피루스”(Papyrus)로서 오늘날 종이와 다르다. 8세기에 중국에서 사용하던 오늘날과 흡사한 종이가 아랍에 의해서 유럽에 공급되기 전까지 유럽에서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 파피루스는 나일 강가에서 자라나는 식물 파피루스의 줄기를 말려서 만든 종이였다. 이 두터운 파피루스 위에 신약본문 전체를 적어 놓고 그것들을 오늘날처럼 한 권의 책으로 묶듯이 합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현존하는 신약 사본들의 숫자는 현존하는 어떤 고대 문헌들보다도 더 많다. 15세기 독일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까지 손으로 쓴 신약 사본들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그리스어로 된 것들이 5,800개 이상이며, 라틴어로 된 것들은 10,000개 이상이며 그 외에 다른 고대 언어들로 된 사본들은

9,300개 이상이다. 이 모든 사본들이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기록한 것들이기에 서로 많은 차이가 난다. 구약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구약성경(MT)과 그리스어로 된 칠십인역 구약성경(LXX)이 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기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보다는 그리스어로 된 구약 본문이 주로 인용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만하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칠십인역 구약성경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 관한 연구나 아니면 초대교회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문제는 구약성경도 처음 기록되었던 본문 즉 원본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소라 구약 원문도 현존하지 않고 그리스어로 기록된 칠십인역 구약 원문도 현존하지 않는다. 원문을 베껴 쓴 많은 사본들만 존재할 뿐이다. 문제는 원문이 생긴 이래 수천 년 동안 손으로 베껴 오면서 의도적인 변경이거나 무의식적인 실수로 인해 사본들 간에 많은 차이가 생겨난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구약 예레미야 본문이다. 그리스어로 된 칠십인역 예레미야 본문이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예레미야 본문보다 훨씬 짧다. 대략 여덟 단어 중에 한 단어 꼴로 부족한 셈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어 본문이 히브리어 본문보다 약 2,700 단어가 빠진 셈이다. 더욱이 본문 배열도 차이가 난다. 이런 다양한 차이들이 왜 생겨났는지 설명하는 작업을 “본문비평”이라고 한다. 사실 본문비평의 목표는 사본들을 비교해가면서 원문 즉 최초의 본문을 찾아내는 것이다. 문제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원문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오늘날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출판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원문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은 본문비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된 여러 원문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종류의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이다.

Yummi House

雅敍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at.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간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 양장피 잡채 \$17.95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505)292-8222



주일 예배 기도

데이빗 라탐 성도
David Latham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Dear Heavenly Father, we are here today to sing songs of worship to You and praise Your Holy Name.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We open our hearts and minds to Your word.

우리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당신의 말씀에 따르고자 합니다.

Please speak to each and every one of us.

여기모인 한사람, 한사람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Touch our hearts and strengthen us to take on the challenges of every day.

매일 매일 부딪치는 도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힘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 만져 주시옵소서.

Father I ask that you use us to be a light with in the community.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 지역사회를 비치는 빛의 도구로 쓰주시길 원합니다.

As we strive to be the church that You want us to be, may we find a way to serve You, the church and the community.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에게 지역사회와 교회와 하나님을 옹계 섬길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Father, be with the pastor as he brings today message.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May he speak the truth and open our eyes to the truth.

목사님께서 진실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진실을 볼수 있게 하옵소서.

Give him wisdom and courage to stand up to evil forces in the world and to be the leader of this congregation.

목사님께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적할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 회중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Please bless him and his family.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Father, be with the elders, deacons and other leaders of this church.

이 교회의 장로님에서 집사님까지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Might their faith be strong and, their wisdom great, as they make decisions for the future of this church.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결단을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Bless them and their families.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Father, be with those teaching our children, might they lead and teach them to follow the right path.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옳은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며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Might Your voice be louder than the voice of the world.

하나님의 목소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게 하옵소서.

Father, I pray that this is true for us as well.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와같이 되길 기도합니다.

Father I ask that You comfort those who are struggling or who are dealing with sadness or grief in their life.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자와 삶의 슬픔이나 근심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May you reassure them that You are there and that You will never leave them.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고 있고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 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Give them strength and bring joy into their life.

그들에게 힘주시고 삶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Father bless the members of this church and their families.

교회의 온교인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Heal the sick and injured.

병들고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시켜주시옵소서.

Be with our country and the leaders.

이 나라와 이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I pray that they seek You and lead us with Your guidance.

<17페이지로 계속>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새 주소로 옮겼습니다 -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입니다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빈센트 반 고흐- 비운의 삶

심유진성도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빈센트 반 고흐(1853년 3월 30일~1980년 7월 29일), 그는 네덜란드 쥘데르트(Zundert)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테오 반 고흐는 그 지역 네덜란드 개척교회 목사로 1849년에 임명됐었다. 쥘데르트에서는 지금까지도 고흐의 생가를 기념하고 있으며, 빈센트 반 고흐 광장과 반 고흐는 물론 동생 테오를 추모하는 동상도 있다. 1890년 7월 27일, 빈센트 반 고흐는 들판으로 걸어나간 뒤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았다. 그는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 총상은 치명적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간 후, 이틀 뒤, 동생 테오가 바라보는 앞에서 37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동생 테오도 병을 앓다가 죽었다. 두 형제의 시신은 나란히 묻혔다.

고흐는 네덜란드 화가로서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는 그의 작품 전부(900여 점의 그림들과 1100여 점의 습작들)를 생을 마감하기전의 단지 10년 동안에 모두 그렸다. 대단한 다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종의 정신질환(즉두엽 기능장애) 때문일 수도 있다. 즉, 하이퍼 그라비아 - 끝없이 글을 쓰는 정신 질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글이 쓰고 싶어지는 욕망) 증상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인데 반 고흐의 경우는 그림이 주체하지 못하는 욕망이었을 것이다. 그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1901년 3월 17일 (그가 죽은 지 11년 후) 파리에서 71점의 반 고흐의 그림을 전시한 이후 그의 명성은 급속도로 커져갔다.

반 고흐가 그린 몇몇 그림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들 사이에 순위가 매겨지기도 한다. 1987년 3월 30일에 반 고흐의 그림 ‘아이리스’가 뉴욕의 소더비즈에서 5390만 미국 달러라는 기록으로 팔렸다. 1990년 5월 15일에 그의 “가세 박사의 초상”이 크리스티즈에서 8,250만 달러(한국 돈으로 약 580억원)에 일본의 다이쇼와제지 명예회장 사이토 료에이(당시 74세)에게 팔림에 따라, 새로운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당시 사이토가 지불한 8,250만 달러는 낙찰가 7,500만 달러에 경매가 구전 10%가 가산된 금액이다. 이후 “가세 박사의 초상”은 미국의 수집가에게 4천 400만 달러에 다시 팔렸다.



가세박사의 초상

자연을 사랑한 반 고흐의 작품세계

두 명의 네덜란드 화가, 램브란트와 프란스 할스가 반 고흐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들로부터 그는 다양한 갈색조, 회색조, 흑색조의 색채를, 음영이 뚜렷한 회화 기법을, 눈에 그대로 보이는 거친 붓자국이 있는 진하게 칠한 채색 기법을 익혔다. 그리고 더 강렬한 전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세부적인 묘사를 포기하는 것을 배웠다. 그는 옛 거장들이 그림들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탄해마지 않았고, 반 고흐 자신도 평생

동안 이 원칙을 고수했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는 일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제, 즉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를 다루었다. 반 고흐는 ‘홀란드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 그들의 가난한 오두막, 수공업자들을 그렸다. 정물화에서는 특이하게도 감자가 자주 발견된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그림에 진실된 것들과 분위기, 감정 혹은 생각을 화면에 전달할 수 있도록 작업에 열정을 다했다. 이 시기에 제작된 가장 유명한 그림은 1885년에 그려진 “감자먹는 사람들”이다. 그 그림에서는 소박한 식사를 하는 농부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반 고흐는 그 그림으로 시골 사람들이 땅과 맺고 있는 질긴 삶과 가혹한 상태를 묘사하고자 했다.



감자먹는 사람들

반 고흐의 예술적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가지는 일본 판화와의 만남이었다. 1853년 일본은 국경을 개방했으며, 그로부터 몇 년 동안 일본판화를 찍은 종이 유럽으로 전해졌다. 그 당시에 서양의 많은 미술가들이 전혀 새로운 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반 고흐도 일본 채색판화를 모으거나 몇 개의 소재를 유희로 옮겨 제작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미술관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들의 형상 원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실제로 그 이후부터 제작된 그의 그림에는 이런 저런 ‘일본적’ 형상 원칙들이 나타났다. 몸 때문에 생긴 그림자의 부재, 가는 선으로 테두리가 둘러쳐진 ‘알게’ 채색된 화면, 이례적인 원근법, 풍경 속에서 아주 작게 묘사된 인물들이 그런 기법들이었다.

파리에서 활동하던 시절이 반 고흐를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다면, 남부프랑스는 그에게 기술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프랑스 아를로 이주한 반 고흐는 지금까지는 일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양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본질적으로 유지했던 이 화법은 우리가 오늘날 반 고흐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화법이다.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반 고흐는 이렇게 적는다.

“사람들은 붉은색과 초록색, 푸른색과 오렌지색, 짙은 노랑색과 보라색의 아름다운 대조를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어.”

실제로 그는 남부프랑스에 도착하여 전체적인 효과에서 상호상승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색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나란히 사용했던 순수하고, 강력한 색채로 그림을 그렸다. 그는 대상의



자화상

자연적인 색을 넘어서었다. 종종 그는 색채를 과장하거나 각각의 그림을 위해서 변형된 색채 체계를 그의 작품에 적합하도록 사용했다. 반 고흐의 그림에서는 초록색 하늘, 분홍색 구름, 짙은 청색의 길이 있다. 그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적고 있다.

“나는 무의미한 짓을 하지 않고,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을 세세하게 관찰하지. 내가 사용한 색이 내 그림에서 훌륭한 효과를 발휘한다면 그것이 사물의 색과 동일한 색인지하는 문제는 더 이상 내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눈부신 색과 강렬한 대조에도 불구하고 고흐의 그림은 결코 야하거나 벽보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는 나머지 색을 약화시키거나 결합시키는 중간 색조를 사용함으로써 조화로운 전체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 이외에도 색채는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 상징적 기능도 지니고 있다.

반 고흐 미술의 기법과 상징

고흐는 재빠르게,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며, 나중에 크게 수정을 하지 않은 채로 그림을 완성하였다. 신속하게 그리는 그의 화법은 한 편으로는 그의 창작욕에서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아주 의식적으로 그것을 표현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그림에 더 많은 생기와, 강렬함과 직접성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좀 더 확실한 전체 효과를 위해서 소재를 단순화했다. 비록 그가 재빠르게 그림을 그리기는 했지만, 충동적으로 그리거나 도취해서 그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는 머릿속으로 그려보거나 여러 장의 스케치를 통해서 충분한 준비를 했다.

반 고흐는 기억이나 생각에 의존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드물었다. 거의 언제나 그는 소재를 눈 앞에 두고서 그림을 그렸다. 눈으로 본 것을 종종 심하게 변형을 시키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연에 충실한 상태였고, 추상으로 통하는 경계선을 넘어서지는 않았다.

고흐는 물감을 희석하지 않은 채 걸죽하게 칠했으며, 가끔씩 물감을 튜브에서 짜서 직접 화폭에 바르기도 했다. 물감을 두껍게 칠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붓자국은 입체적으로 보였고, 고흐 특유의 붓놀림을 나타내는 것에 아주 적합했다. 매끄러우면서 윤곽선이 둘러쳐진 일본풍의 채색면 이외에도 반 고흐는 이미 파리 시절에 색을 짙은 선 모양으로 나란히 터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자신의 그림을 좀 더 생생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별이 빛나는 밤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가 생 레미에서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런 터치의 선을 윗동적으로 구성하고, 물결 모양, 원 모양, 나선형 모양으로 배열하기 시작했다. 1889년에 제작된 자화상이나 1889년에 그려진 “별이 빛나는 밤”이 그것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반 고흐는 화법을 각각의 소재와 연관지어서 선택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단순하게 재현하는 것이 고흐의 목표가 아니었다. 오히려 소재가 지닌 본질과 특성, 그리고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욱 중요했다. 그래서 그는 외젠느 보쉬(Eugène Boch)의 초상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는 이 그림에서 내가 그에 대해서 느끼는 경탄과 사랑을 담고 싶었어. 머릿속으로 나는 무한한 것을 그렸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성취했던 것 중에서 가장 진한 인상적인 파랑색으로 간단하게 배경을 그렸어. 그리고 이 간단한 구성을 통해서 빛나는 짙은 파란색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금발의 머리는 질푸른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수수께끼와 같은 것을 지니게 되었어.”



아이리스

화가는 형식과 색채를 변화 시킴으로써 바라던 표현의 강렬함을 달성할 수가 있다. 형식에 있어서 고흐는 단순화를 향해 움직여 간 반면에 색채는 점점 강화시켰다. 그 밖에도 고흐는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했다. 많은 그림에서 그는 언어를 통해서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전래된 상징 이외에 그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상징 언어를 사용했다. 그 상징 언어의 의미는 그의 생애, 사고와 감정 세계에 대한 앎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스케치 판, 파이프, 양파, 봉랍이 있는 정물화에서 그는 그에게 도움이 되었던 물건들을 배열했다. 건강 지침서와 그 책에서 불면증에 대해서 좋다고 권해준 양파, 그가 좋아하던 파이프와 담배통, 테오가 보낸 편지 한 통과 친구와의 밀접한 결합을 상징하는 봉랍, 삶의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불타고 있는 촛대, 금주의 상징인 빈 포도주 병등이 그와 같은 대상들이었다.

에필로그

지금까지 반 고흐에 대해서 읽어 보았는데, 우리는 화가 고흐라는 이름을 흔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그림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짧은 글 속에 고흐의 많은 이야기들을 담을 수는 없다. 그래서 반 고흐의 극적인 삶이나 그림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 쪽으로는 몇 개의 문장으로만 만족하기로 하였다. 비록 진품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사진이나 복사본을 통해서 고흐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때에, 좀 더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 있고 그림을 즐기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위주로 요약하였으며 그 내용에 관련된 그림을 넣어서 편집하였다. 고흐의 삶이나 작품세계에 대한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견해는 배제하였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료에 의존하였으며, 단지 번역이 잘못되어 문맥이 맞지 않거나, 일반적인 언어가 아닌 부분들을 쉽게 고쳐 적었다.

<14 페이지에서 계속 주일예배 기도>

그들이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들을 이끌어 가게 되길 기도합니다.

Father we are sinners.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We ask that You forgive us of our sins.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We are so thankful that You loved us so much, that You took on our sins and paid the price for our sins in full.

우리의 죄를 대신 질머지셨고 죄값을 다 치루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Might we show love to each other.

우리도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If we have any conflict with others might we reconcile those differences.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서로의 차이를 화해로 극복 할 수 있게 하옵소서.

Might we see the needs of others and do what we can to meet their needs.

우리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기꺼히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감당케 하소서.

May we continue to grow in our fellowship and service to each other.

이웃을 위한 우리의 봉사와 친교가 더욱 더 자라고 지속되게 하옵소서.

Finally Lord, bless, protect and use us this week.

끝으로 주님, 이번 주일도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These things I pray in Jesus's holy name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gbjjyo@hotmail.com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505)-269-0691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주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88011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 652-4627

§월모임:매월 세 번째주 일요일 오후 6:00 pm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 성령기도회, 성서입문: 매주 월, 수, 금

웹사이트:cafe.daum.net/abq-catholic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505)412-5420

hanaro21@hotmail.com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ean.org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Worship) §11:00 am (Sunday)

English Worship § 9:30 am- 10: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11:00 am (Sunday)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클로비스 한인 순복음교회

이 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4312 Coors SW (505) 877-2777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ABQ, NM87112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한식 코너 1410 Wyoming Blvd. NE (505)275-9021	Kelly Liquors #12 6631 Paradise Blvd. NW (505) 897-0088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 9021)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주택용자 Loan Officer
Asia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503-7685)	건축/페인트 Painting	부동산 Realtors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공인회계사 CPA	세탁소 Dry Cleaners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치과 Dental Clinic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Asian Pear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신장개업 2015.1.9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리커스토어 Liquors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태권도 TaeKwonDo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Kelly Liquors #1 9411 Coors NE (505) 897-9676	월셋집 House for Rent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3 bedroom 2 bath. 즉시 입주 가능. 월세 \$950 보증금 \$950 위치: Montano and Coors근처. 건평: 1100 square ft. 문의 전화 (505) 220 9372. 류정남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의류 Clothes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한의원 Acupuncture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종교 Church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Kelly Liquors #10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505-764-1900)

하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Photo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 505-797-2211
커튼우드 505-792-5111
산타페 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트 505-286-3535
www.dahnyoga.com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
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출혈: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Bernalillo/Belen/ Bosque Farm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산타페 Santa Fe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412-5420
www.santafekorean.org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1
387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2244

Kelly Liquors #2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s #3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206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백화점 Mart

T-Mart
320 B West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1508 Thornto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
453-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고에 관한 문의는

voiceofnm@gmail.com
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호 1/2월호의 원고 마감일은
2016년 1월3일 입니다.

광야의 소리 지난호 보기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iceofnm.kumcabq.com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5년 11/12월호

발행일 : 2015.11.11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인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New Mexico Propertie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6739 Academy Rd.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888-1700



A member of the franchise system of BHH Affiliates, LLC. Equal Housing Opportunity.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How much home do you qualify for?



Interest rates can greatly affect your loan amount and
how much home you can afford.

Your credit history, the type of mortgage you choose, loan amount, and current market conditions
are all things that affect your interest rate.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the loan amount and sales price you qualify for is determined by your
income, and monthly debt. However, there are many options available that will allow you to
purchase a home with less cash required and a lower payment...

Call to see how much home YOU qualify for.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 512561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eFax 505-855-7301

mkim@bokf.com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Bank of Albuquerque

3900 Vassar Dr NE

Albuquerque NM 87107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주택 융자 업무를 정성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Rates effective 11/15/15. © 2014 Bank of Albuquerque, a division of BOKF, NA. Member FDIC. Equal Housing Lender. Informatio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This is not an offer for extension of credit or a commitment to lend.

Member
FDIC